

쳇 베이커의 My funny valentine에 대한 재즈 음악적인 고찰

황수영,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hwangsuyeong@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 Jazz Musical Study on Chet Baker's My Funny Valentine

Su-Yeong Hwang, Tae-Seon Cho*
Chungwoon graduate school,
*Dept.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현대의 대중음악은 더 이상 특정 장르를 지향하기보다는 과거의 명곡을 바탕으로 과거 발라드(Ballad) 음악에서 재즈(Jazz) 음악으로 현재의 팝(Pop) 음악에 이르기까지 각 장르를 탄생시킨 그 시대의 상황들이 음악적인 요소에 녹아들었다. 현재의 음악은 과거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추구할 수 많은 연주자들로 그 역사적 의의를 이어오고 있다. 본 연구와 발표의 목적은 과거의 명곡을 시대가 변함으로서 발전되어온 요소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논하고자 하였다.

1. 서론

2. 본론

리처드 로저스는 1920년~60년대에 걸쳐 40년 동안 미국의 뮤지컬계 작곡가로서 평판이 좋은 수많은 작품들을 냈으며, 프로듀서로서도 큰 업적을 남긴 뮤지컬계의 거물이다.

1937년 4월부터 289회 상영된 뮤지컬 <당신의 품에(Babe's in Arms), 1937.>속의 삽입곡으로서 마치 그린이가 불렀으며 이후 뮤지컬 < 팰 조이(Pal Joy), 1957.>를 1957년도 컬럼비아(Columbia)사에서 영화로 제작, 극중에서 김 노박(Kim Novak)이 불러 리바이벌 히트 하게 되었다. 현재 600여 이상의 아티스트들의 1300여 장 이상의 앨범에서 연주되어 지고 있다. 1945년 색소폰 주자인 할 매킨타이어(Hal McIntyre)와 보컬 루스 게일러(Ruth Gaylor)가 부른 버전이 첫 번째 차트에서 히트 했으며 이후 쳇 베이커(Chet Baker),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 엘라 피츠제럴드(Ella Jane Fitzgerald),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 스팅(Sting) 등이 연주하여 유명해졌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뮤지션들이 이곡의 단순하고 전통적인 곡의 구조에 자신의 즉흥연주와 장르에 새롭게 맞추어 편곡되고 있다. 이렇듯 음악사 적으로 호평인 작품을 살펴봄으로서 앞으로의 대중음악사에 어떠한 변화들이 생겨날 것인지 연구한다.

2.1 음악가 연구 및 곡 소개

쳇 베이커의 본명은 체스니 헨리 베이커 주니어(Chesney Henry Baker Jr.) 미국의 재즈 음악가이자 트럼펫 연주가이다.

1929년 12월 23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태어났다. 기타 연주자인 아버지 체스니 베이커(Chesney Baker)와 피아니스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를 배우고 아버지에게서 트럼펫을 배우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암기하면서 음악적인 영감을 얻었다. 이후 L.A.에 있는 엘카미노 대학(Elcamino College)에서 음악 이론을 배웠으나 2년 만에 중퇴하고 군악대에 입대하였다. 그는 1년만에 정신 감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전역하면서 L.A.로 이사하게 되고 1949년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을 듣고 비밥과는 다른 쿨 재즈라는 영역에 눈을 뜨게 된다. 이후 찰리 파커(Charlie Parker)와 협연기회를 얻어 신인 트럼펫터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콰르텟을 꾸리던 게리 멀리건(Gerry Mulligan)의 팀에 합류하면서 연주 활동이 시작되었고 23세의 쳇 베이커는 퍼시픽 재즈밴

드(Pacific Jazz Band)의 리더로서 첫 음반 녹음과 공연을 시작하며 대중에게 주목받는 뮤지션 활동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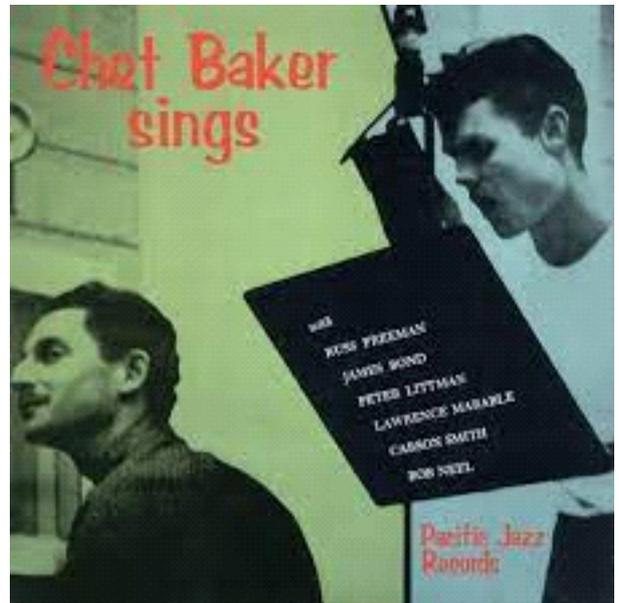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쳇 베이커의 마약 복용은 그의 음악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1959년 유럽으로 이주해 이탈리아에 정착하여 술집에서 마약을 복용하며 지냈다. 결국, 마약 혐의로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 후에도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며 마약을 복용하다가 미국으로 추방당한다. 미국으로 돌아온 쳇 베이커는 마약 딜러들에게 폭행을 당해 치아를 잃어 트럼펫 연주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음악 활동을 멈추게 되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쳇 베이커의 연주를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쳇 베이커는 사고 후에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틀니를 사용하여 연습을 계속해 1970년대에 연주를 재개하게 된다. 이후 미국보다 쳇 베이커를 환대하는 유럽으로 이주하여 후기 연주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연 실황 및 스튜디오 녹음 등 활발한 활동으로 후기 연주 활동을 시작했다.



[그림 1] '쳇 베이커(Chet Baker)'

쳇 베이커의 <Chet Baker Sings>는 1954년 퍼시픽 재즈 레코드에서 발매한 음악가 쳇 베이커의 데뷔 보컬 앨범이다. 웨스트 코스트 재즈, 쿨 재즈, 보컬 재즈 장르이며 총 14곡이 수록된 이 앨범에서 특히 'My funny valentine'은 쳇 베이커의 공연에서 거의 매번 불렀을 만큼 쳇 베이커의 대표곡이기도 하다.

'My funny Valentine'은 쳇 베이커가 1956년 발표한 첫 번째 보컬 앨범<Chet Baker Sing>에 수록된 곡으로 리처드 북(Richard Bock)이 프로듀서를 맡았다. 원래는 1937년 초연된 뮤지컬<베이비 인 암스(Babes in Arms)>에 사용된 곡으로 리처드 로저스가 곡을 만들고 로렌트 하트가 가사를 썼다.



[그림 2] '쳇 베이커의 데뷔 앨범'

2.3.음악적 분석 및 형식

악곡 형식은 원곡과 크게 다를 바 없는 A-A'-B-A이다. 초기 스탠다드 재즈에서 많이 나오는 형식이며 주 멜로디인 A- 유사 멜로디인 A'- 변형된 B- 주 멜로디 A-의 형식으로 멜로디를 전개 시킨다.

2.3.1 선율

음악이 시작됨과 동시에 흘러나오는 목직한 베이스 소리와 함께 무심한 듯 애뜻하게 가사를 부르는 쳇 베이커의 목소리로 음악이 채워진다. A파트의 끝자락에서부터는 재즈피아노의 소리가 더해지면서 쳇 베이커의 목소리를 따라 물 흐르듯 연주되어지고 있다. 멜로디가 비어있는 구간은 마치 콜 앤 리스폰스(Call and Respinse)로 연주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멜로디에서 멜로디로 이동하기 위해 패싱톤(Passing tone)이 있고, 멜로디가 크게 이동하지 않고 머무르는 이웃 톤(neighborhood tone)이 쓰여졌다. A' 파트에서 잔잔한 드럼 연주가 추가되어 곡의 완급 조절을 돕고 있다. 거의 대부분 말렛 스틱의 연주로서 멜로디가 비어있는 부분에 웅장함을 더해준다.

2.3.2 화성

1도 마이너 Cm를 시작으로 보통의 재즈, 발라드에서 많이 쓰이는 라인클리셰(Line Cliche) 코드 진행(Cm - CmM-7 - CM7 - Cm6)을 사용했다. 곡이 지니고 있는 다이아토닉 코드를 사용하여 진행하여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림 3] 'My funny Valentine A.part'

A파트의 G⁷_b⁹은 앞선 코드인 Fm⁷ - Dm⁷_b⁵ 코드로부터 투파이브윈 코드 진행을 맞춰주기 위함으로서 세 가지의 마이너 코드 중 하모닉 마이너 코드를 가지고와 화성을 완성 시켰다.



[그림 4] 'My funny Valentine B.part'

B파트 에서도 A파트와 마찬가지로 G⁷_b⁹ 코드를 도미넌트 느낌을 내기 위해 하모닉 마이너 코드를 가지고 와 화성을 완성 시켰다. B^bm - E^b7 - A^bM⁷ 코드 진행으로 세컨더리 도미넌트 진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해결 하려면 세컨더리 도미넌트인 B^bm - E^b7 - A^bM⁷ 코드진행을 사용하여 해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브스티튜드 도미넌트를 채용한 것은 Cm - B^bm - A - A^bM 코드들의 하향 진행 혹은 반음 진행을 유도하여 듣는 이의 재미를 주기 위해 투파이브윈 느낌을 가져가되 서브스티튜드인 A⁷ 코드를 사용한걸로 보인다.

2.3.3 리듬

전형적인 발라드 리듬이며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베이스의 자유로운 리듬이 연주된다. 초반부 연주는 리듬 파트의 개입 없이 진행된다. 8마디 끝자락부터 연주되는 피아노의 연주가 리듬악기를 대신하듯 보컬이 연주하지 않는 부분을 마치 대답하듯이 채워주고 있다. 곡의 중반 연주부터 블루스의 색채를 내기 위해 브러쉬가 심벌을 긁어 연주에 힘을 더해준다.

4. 결 론

과거의 명곡을 재해석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음악적인 발전과 대중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많은 과거의 명곡들을 재해석하는 실험과 도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대의 상황들과 흐름에 따라 탄생할 수 있는 음악의 장르와 다양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명곡들이 시대를 거쳐 감에 따라 다양한 악기의 개량과

개발, 화성의 진행, 선율의 다채로운 변화들까지, 그리고 음악적인 사운드들의 발전은 과거의 명곡들을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좋은 시대적 조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과거의 명곡들이 각 시대를 거치며 어떤 사운드로 탈바꿈 되어가며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는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편곡되고 어떤 장르와 더 결합이 될 것인지 까지 예측하고 미리 대비함으로서 더 좋은 음악들을 더 빠른 시일내에 우리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연구해야겠다.

참고문헌

1. 장문권 재즈 스탠다드의 재해석 상명대학교 문화 예술 대학원 2011
2. 나무위키
3. www.freshsheetmusic.com
4. www.google.com
5. www.naver.com
6. <http://www.riss.kr/index.do>